

전북지역 창업 문화 선도할

#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단' 출범

전북대에 등지... 기술창업 역량·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등 전북 특구 내 창업 촉진

전북지역 창업 문화를 선도하게 될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단이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에 등지를 틀었다. 전북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고 연구개발특구가 시행하는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사업에 선정돼 25일 오후 글로벌인재관 컨퍼런스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남호 총장과 진흥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박은일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장 등이 참석해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정서 전달과 현판식 등이 진행됐다.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사업은 2년간 총 8억 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거점대학을 이노폴리스캠퍼스로 지정해 기술창업 역량과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등 전북 특구 내 창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좀 봐주겠니?” 25일 전주동물원이 시 여파로 4개월 만에 재개장 한 가운데 꼬마 관람객이 사자를 보고 있다.

실제 창업을 유도한다 또한 검증된 아이템에 대해 3D 프린터 등을 이용한 시제품 제작도 지원한다.

그간 창업보육센터와 창업교육센터 등을 통해 학생 창업과 유망 벤처기업 등을 적극 육성해 온 전북대가 이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모험 인재 양성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남호 총장은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단은 체계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우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학의 우수 기술이 창업의 현장이 되

를 대비한 모험 인재 양성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남호 총장은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단은 체계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우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학의 우수 기술이 창업의 현장이 되

는 창업 친화적 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다”며 “특히 차별화된 창업 아이템 검증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대학 모험인재 양성의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정해은기자

## 교육공무원 명퇴 신청·접수

전북도교육청이 오는 6월 30일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신청을 접수한다.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 남아 있는 공무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거나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람 ▲국가공무원 또는 다른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은 명퇴 신청을 할 수 없다.

도교육청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내달 28일까지 명퇴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해은기자

## 전북도교육문화회관

### '마음을 채우는 인문학 아카데미 3인 3색' 운영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경제·문화·예술 분야 인사 3명의 주제 강연

'마음을 채우는 인문학 아카데미 3인 3색' 강연이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2층 노래교실에서 개최된다.

이 인문학 강연은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지적·문화적 욕구를 채우고 삶의 풍요로움을 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경제·문화·예술 분야로 운영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제1강 '발상의 전환과 경제리더십'(김대웅), 제2강 '경제성장의 허구와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를(윤영선), 제3강 '욕망으로 피어난 도시 피렌체'(성재환)의 주제 강연이 이루어진다.

문화 분야에서는 제4강 '가슴에 새겨두고 싶은 시와 시인'(문신), 제5강 '강시 읽는 즐거움'(북효근), 제6강 '일상이 작품이다'(김정배)의 주제 강연이, 예술 분야에서는 제7강 '음악으로 듣는 인문학'(임지운), 제8강 '전통의 멋, 한옥'(남해경), 제9강

'미술관 옆 인문학(이용석)의 주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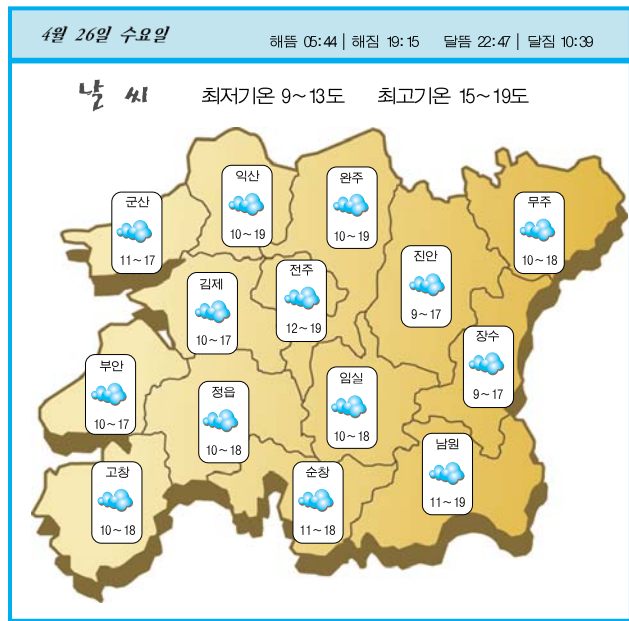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으로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또는 누리집(www.jc.go.kr)으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도교육문화회관 최재춘 관장은 "다양하고 즐거운 인문학 강연으로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인문소양 교육 강화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제1강 '발상의 전환과 경제리더십'(김대웅), 제2강 '경제성장의 허구와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를(윤영선), 제3강 '욕망으로 피어난 도시 피렌체'(성재환)의 주제 강연이 이루어진다.

문화 분야에서는 제4강 '가슴에 새겨두고 싶은 시와 시인'(문신), 제5강 '강시 읽는 즐거움'(북효근), 제6강 '일상이 작품이다'(김정배)의 주제 강연이, 예술 분야에서는 제7강 '음악으로 듣는 인문학'(임지운), 제8강 '전통의 멋, 한옥'(남해경), 제9강

/정해은기자



## 공무원범죄사례·청탁금지법 청렴 교육 연수 진행

군산교육지원청, 관내 유·초·중 교장, 교감 등 대상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광순)은 지난 24일 관내 유·초·중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 2백2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범죄사례 및 청탁금지법 등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전라북도교육청 전현규 사무관이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범죄 주요 발생사례 및 청탁금지법 등 청렴교육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범죄 관련 사전 예방을 강조하였고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구약식, 기소

유에 처분되므로 교직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청탁금지법 등 교육을 통하여 불법리뷰나 접대 등 부정부패를 막아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실현을 위하여 힘쓰자고 강조했다.

주광순 교육장은 “교육가족은 외부인들로부터 더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는 만큼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므로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군산=김판근기자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 19.3:1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2017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 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91명 선발에 3687명이 접수해 평균 19.3: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25일 밝혔다.

127명 선발에 2829명이 접수한 지난 해보다 경쟁률(22.1:1)은 다소 낮아졌으나 선발 인원이 증가한 만큼 접수 인원은 상당수 증가했다.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직은 일반 111명 선발에 2630명(경쟁률 23.7:1), 장애인 6명 선발에 57명, 저소득층은 3명 선발에 35명이 접수하였고 전산은 4명 선발에 88명, 사서는 3명 선발에 59명, 공업 일반

직은 7명 선발에 82명, 공업 일반직은 8명 선발에 56명, 시설 건축은 10명 선발에 109명이 접수했다.

또한 경력경쟁 임용시험 공업 일반 직은 2명 선발에 16명, 공업 일반 직은 2명 선발에 22명, 시설 건축은 2명 선발에 25명, 식품위생은 6명 선발에 193명, 운전은 27명 선발에 317명이 접수했다.

시험 장소는 6월 7일 공고하고 필기시험은 6월 17일에 실시하며 필기 시험 합격자는 7월 14일에 발표한다. 면접시험은 8월 3일에 치르며 최종합격자는 8월 11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해은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바라보는 교사와  
학생들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리밭' 역할을 재확인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